

# ‘교사 노트북 수시로’ 시험 답 빼낸 학생들

### 외벽 창문으로 교무실 드나들며 노트북마다 악성코드 심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영어 제외한 모든 과목 답 빼내

학교 교무실에 수시로 무단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여러 대에서 시험 답안을 빼낸 고등학생들의 범행 경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대동고 2학년 학생인 A·B군은 올해 4월 중순 어느 날 밤늦게 학교를 다시 찾았다.

하교한 지 한참 지난 오후 10시 넘긴 시각이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교문을 지나쳐 갔다.

본관 내 열린 창문을 차례로 넘어 건물로 들어선 뒤 실내 계단을 통해 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소강당 창문을 통해 다시 건물 바깥으로 나와 외벽 난간과 배수관 등을 디딤돌 삼아 수평으로 이동, 4층 2학년 교무실로 향했다.

잠겨있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이들은 과목별 교사 노트북을 하나 둘 켜기 시작했다.

전원이 들어온 노트북 화면에 잠금 설정 비밀번호가 뜨자 B군은 자판을 몇 차례 두드려 일부러 3차례 비밀번호 오류를 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암호 해독 사이트에 접속, 화면에 나온 오류 코드를 검색·재입력했다.

운영체계(OS) 계정 비밀번호가 나오자, B군은 미리 준비한 USB(휴대용 저장장치)를 노트북에 꽂아 부팅 프로그램을 가동, ‘관리자 계정’을 활성화 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2번에 걸친 노트북 보안 절차를 헤쳐낸 B군은 USB에 미리 담아둔 ‘악성 코드’를 설치했다. 과목별 교사 노트북마다 20분씩을 들여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 A군은 할금할금 주변을 살폈다.

두 학생은 다른 과목 교사 자리가 있는 2층 교무실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넘어들며, 책상 위 노트북마다 차례로 악성 코드를 심었다.

2층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는 출제 시험지 보관 장소 출입문만 비추고 있어, 두 학생의 수상한 행동은 녹화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사실 방범 설비가 있었지만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유유히 학교를 빠져 나온 이들은 사나흘이 지나 비슷한 경로로 2·4층 교무실을 오갔다. 이번에는 교사가 며칠 새 노트북으로 작업했던 화면이 그대로 남겨진 이미지 파일을 통째로 USB에 옮겨 저장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출제 기간

중 교사들이 만든 시험지와 배정·정답 등이 담긴 문항 정보표 등이 무더기로 B군의 USB에 차곡차곡 담겼다. B군은 앞서 설치한 악성 코드도 하나 하나 삭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두 학생은 중간고사 8개 과목 중 7개 과목(수학1·수학2·독서·생명과학·한문·일본어·화학)의 답안을 손에 넣었다. 서로 겹치지 않는 선택 과목을 빼면 각자 중간고사 응시 8개 과목 중 5개 과목 답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었다.

며칠 뒤 치른 중간 고사에서 두 학생은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 답을 아예 빼지 못한 영어 과목은 서로 점수가 크게 엇갈렸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7월 11~13일)를 열흘여 앞둔 지난달 30일 밤 다시 한번 교무실을 찾았다. 그 사이 한국사 교사가 자리를 옮긴 별관 교무실까지 총 3곳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또 다시 답안을 빼냈다.

이번에는 공동 5개·선택 4개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빼냈고, 영어를 제외한 전 과목(7개)을 각자 미리 답을 외운 상태로 기말고사를 치렀다.

이렇게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했

지만, 시험 직후 A군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같은 반 학생들에게 털미가 잡혔다.

답을 통째로 외운 B군과 달리, A군은 문제지 모서리 부분에 답을 한꺼번에 적은 뒤 시험을 치렀다. 시험이 끝나면 답안이 적힌 문제지 모서리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이를 눈 여겨 본 학생들은 갈기갈기 찢겨 있는 쪽지를 다시 맞춘 뒤 생명과학 과목의 정정 전 응답까지 적혀있는 점을 의심, 학교에 알렸다.

학교 측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군 자택에서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같은 날 A군의 자택으로 B군의 공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악성 코드 설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평소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과 욕심이 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B군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직접 변형한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등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두 학생의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추가 공모 학생 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광주 남부소방, 보고·경고·공감하는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육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주 동부소방,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광주 동부소방서는 영화상영관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내달 8월 26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담양소방, 장마철 막바지 전통시장 선제적 예방활동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 곡성군 소재 전통시장 대상으로 장마철 전통시장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서승호 광양소방서장, 관내 화재취약대상 현장 방문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화재취약대상(광영 매일시장, OCI, 조선내화, 피제이메탈)을 방문하여 위험 요소 확인과 관계자 안전 지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완도해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지휘관 현장점검 실시

완도해경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22일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휘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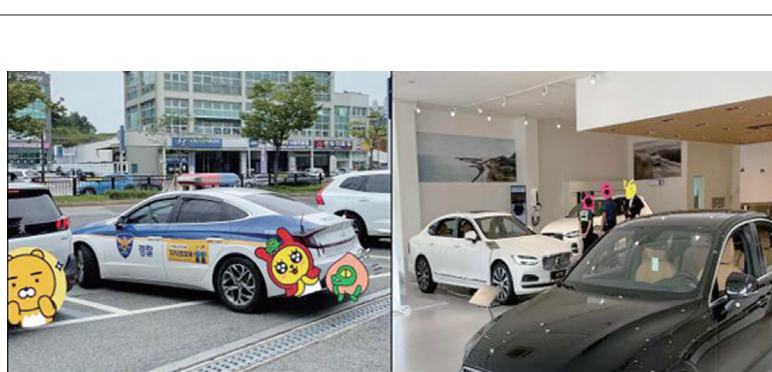
### 광주전남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숲체험 행사 가져

광주전남병무청은 지난 25일 곡성에 위치한 국립 곡성 치유숲에서 광주전남학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숲체험 여름캠프 행사를 갖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폭염대비 물품 점검  
낮 최고기온이 30도가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2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 119구급대 강성현 소방장과 유선주 소방사가 폭염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 “경찰 근무 중 외제차 상담 다른 경찰들 얼굴에 먹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외제차 상담을 받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3일 ‘근무 중 차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외제차 전시장을 찾은 작성자 A씨는 “경찰들이 근무 중에 차 상담받으러 다니는 거 가능하냐”며 “황당한 걸 목격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요즘 차에 관심이 있어 외제차 전시장에 구경과 상담 갔는데 경찰차가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다”며 “전시장 안에 남경 한 명과 여경 한 명이 있길래 직원에게 무슨 일이나 물어다니 (경찰들이) 차 보러 온 거라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들이) 직원에게 차 소개를 받고 주차장에 나가 시승차에 앉아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차가 주차장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모습과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직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근무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에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접한 경찰청 소속 경찰은 “잠깐 커피 사 마시는 것도 아니고 30분 이상 걸릴 게 뻔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무복 입고서 하는 사람들 보면 징글징글하다”고 비판했고, 다른 경찰들도

“근무 시간에 차 상담받으러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소리 충분하다” 등으로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너 회사생활이나 돌아봐라”, “외근 돌면서 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너는 출근하면 퇴근까지 카페 한 번 안 가고 일만 하느냐?”며 근무 시간 중 차 상담 받는 행위를 두둔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해당 사진과 글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지정장소 외 사적 용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용차 사적 사용)’ 등 법적 조항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며 “불철주야 현장에서 애쓰시는 대부분 경찰관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조사 후 사적 용무로 밝혀지면 규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또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파출소장은 근무 중이던 경찰들이 외제차 전시장에 방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30분가량 전시장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해명했다. 정승호기자

## “잘 치워봐 편돌아”...편의점 어지르고 알바생 조롱한 10대



10대들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생에게 조롱하는 글귀를 남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리고 진정이 안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전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는 A씨는 손님들이 먹고 난 테이블을 정리하려다 깜짝 놀랐다. 햄버거, 커피잔, 플라 등을 먹고 뒷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고 간 쓰레기들이 어질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쓰레기 옆에는 “잘 치워봐 편돌아”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하는 글귀도 쓰여 있었다.

A씨는 “선크림으로 쓴 글씨였다”며 “이들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10대 3명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진짜 이런 일이 있다니”, “악질이다”, “영양분제로 처벌 못하냐?”, “그래도 음식물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